**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(가)** 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뱃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바다를 바라보고,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캘 뿐 한가하다.  사흘 째 되던 날,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. 박 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.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. 윤 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.  “저 구름발 좀 보라니?” / “음!” 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 오르고 있었다.  윤 노인이 또,  “하하아 저 물빛 봐!”  박 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. ⓐ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. 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.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. 틀림없었다.  이번에는 박 노인이 뻔히 알면서도,  “대마도 쪽으로 갔지?”  “고기 떼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….” 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.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. 바람도 딱 그쳤다. 너울이 점점 커 왔다.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컥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.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. ㉠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.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. 무서운 밤이었다. 깜깜한 칠야, ⓑ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,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. 그것은 마치 바다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뭍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.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 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. ⓒ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. 이러는 동안에 날이 샜다.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 가고 파도도 낮아 갔다. 샌 날에 보는 ⓓ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. 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이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. 윤 노인이었다.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 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들이밀자 윤 노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 밖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로선지 며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 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.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. | |  |  | | **[A]** | | |  |  | |  |  |   ⓔ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, 볕은 한결 뜨거웠고,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. 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.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.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,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었다.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.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. 이틀이 지났다. 울음에도 지쳤다.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.  ― 설마 죽었을라고. ― 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. 살아야 했다.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. 해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.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했다. 해순이도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.  해조를 따고,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. 멸치 철이건만 후리\*도 없었다. 후리막은 집 뚜껑을 송두리째 날려 버린 그대로 손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. | |  |  | | **[B]** | | |  |  | |  |  |   - 오영수, ｢갯마을｣ -  **(나)**  **S#14.** 축항  시멘트로 만든 축항./윤 노인과 박 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.  윤 노인 거 왜 을축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… 용왕님만 노하시면 속절없는 거야.  박 노인 암 여부가 없지…. (수평선을 보며)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….  윤 노인 (침통하게) 음….  박 노인 아무래도 심상치 않아…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….  바람이 점점 세어진다.  **S#15.** 노목  성황당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.  S#16. 바위  점점 커 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진다.  S#17. 축항  밀려온 파도는 축항을 뒤엎을 듯이 노한다.  S#18. 몽타주\*  문을 열고, 하늘을 보는 가족들. 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. 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낙들.  S#19. 하늘 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./번쩍이는 번개./천지를 진동하는 천둥.  S#20. 들판  폭우에 휩쓸리는 나무./무서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./벼락이 떨어지며 고목 하나에 불이 붙는다./쏟아지는 비! 비!/몰아치는 바람.  S#21. 길(밤)  돌각 담으로 된 골목길을 달리는 해순.  숨은 하늘에 치닿고/옷은 비에 젖어 나신이나 다름없고…./넘어지며 달린다./번개! 천둥….  S#22. 성황당(밤-비) 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/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 해순 서낭님예… 서낭님예…. 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./잠시 후 순임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.  S#23. 하늘(밤-비)  먹장 같은 구름에 뒤덮여 검기만 하다./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다./크게 번개가 친다.  S#24. 노한 밤바다 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./처절한 성구의 얼굴./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./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칠./분주한 선원들의 모습./더욱더 거센 파도./흔들리는 뱃사람들…./파도에 쓰러지고/흔들림에 넘어지고…./이윽고 배는 나뭇잎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간다.  S#25. 성황당(밤-비) 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였다./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아낙들.  S#26. 윤 노인의 집 앞(밤-비)  윤 노인이 나온다./순임이 따라 나오며  순임 아버지예. 이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김니꺼….  윤 노인 마 퍼뜩 다녀올 끼다….  순임 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끼요….  상수 (가며) 앙이다.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….  나간다.  S#27. 축항(밤-비)  파도가 휘몰아치는 축항을 위험스럽게 걸어온다./빈 배에 걸려 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 노인은 파도에 빨려 축항 밖으로 떨어진다./잠깐 허우적거리는 듯하더니 노도에 휩쓸려 버린다.  S#28. 성황당(밤-비)  더욱더 거센 비바람./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. 가지가 꺾어진다./O.L.  S#29. 아침 바다  어젯밤의 폭풍우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다./모래밭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.  - 오영수 원작, 신봉승 각색, ｢갯마을｣ -  \* 후리: 그물의 한 종류.  \* 몽타주: 따로따로 촬영된 장면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편집 방식. |